

地域林業의 發展과 林道의 機能

李 麗 夏 / 建國大教授

우리는 간단한 林業統計에 의하여 우리나라 山林이나 林業의 特徵적인 몇가지點을 쉽게 指摘할 수 있다.

이를 要約하면 첫째 國土의 66%가 山林이라는 面積比에서 말하듯이 山林이 國土 保全이라는 國家的인 次元의 重要性을 쉽게 느낄 수 있고 둘째는 山林構造面에서 20年生未滿의 幼令林이 83%나 되는 絶對的인 面積比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같이 山林構成比率은 林業政策이나 經營의 基本方向을 決定하는데 가장 重要的 要因이 된다. 셋째 所有構造面에서 私 有林이 72%나 되고 이들중 10ha未滿의 所有者가 全體의 96%가 된다고 할 때 林業이 大面積經營을 通하여 發展할 수 있는 基本原則과 크게 어긋난다는 點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넷째는 山林事業이 투자회입 기간이 길고 低收益性이라는 취약점에서 山主 스스로의 自力開發은 기대하기 어려운 事業인 反面 社會가 要求하는 山林의 間接效果는 GNP의 18%나 되면서 이를 實感있게 認定받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서 山林廳의 年間豫算은 國家豫算의 0.35%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에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以上の 統計的인 數値가 말해주듯 國土 保全의 7割은 山林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機能의 重要性이 投資에 充分히 반영되고 있지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混

亂期의 山林荒廢가 洪水와 土砂流出 및 各種 施設物의 파괴로 인한 여러가지 災害가 國民生活을 뒤흔들어 놓은것을 잊고있는 것이다.

이제 山林의 段階的인 發展過程에서 資源化를 위한 投資段階임에도 不拘하고 投資意慾이 떨어지고 있는 狀況에서 앞으로 이를 克服하기 위한 政府豫算上의 확충으로 적절한 政策變化를 期待하는 것이다.

'87年을 基準한 우리나라 林業總生産은 約 7,000억원인데 비하여 山林의 公益的 效用價値는 이의 25배에 해당하는 17兆6,000억원으로 國民總生産의 18%에 達한다고 發表하고 있다.

이제 이와같은 山林의 機能效果를 새로운 視角에서 認識하고 山林을 再評價하로서 政府의 投資比率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現代社會가 産業社會로 發展하면 할 수록 이와같은 環境林業의 重要性은 더욱 커지기때문에 山林이 一般構造物築造와 같이 쉽게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點이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II令級以下の 幼令林比率이 높다는 것은 그간의 綠化意志가 周邊與件의 成熟에 힘입어 林業의 段階的인 成長過程에서 불 때는 一次的으로 成功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成功은 劃期的인 政策에 힘입어 이루어 졌으나 當時 社會的 經濟的與件

과 더불어 國民意識 또한 이와같은 必要性을 認定하고 汎國民的 植樹運動에 參與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政府가 意慾的인 事業으로 評價받고 있는 治山綠化期間에 約 200萬ha 以上の 面積을 造林하였을 뿐 아니라 解放後 治山綠化計劃期間이 始作되기 前年度인 1972年末까지 280萬ha에 걸친 面積을 造林한 것으로 統計上 나타나 있다.

이 數字는 解放後 植栽한 造林延面積으로서 速成樹를 비롯하여 既 伐期에 到達하여 伐採更新이 되었거나 地域에 따라서는 數次的 造林失敗로 因하여 二重 三重으로 계속 식재된 面積이 포함된 듯 하다.

따라서 造林의 歷史와 더불어 이들 山林이 되어 撫育間伐과 伐採豫定地가 늘어날 뿐 아니라 現在 많은 산림이 撫育 伐採와 搬出의 어려움으로 그간의 회생적인 投資에도 不拘하고 適正한 立木價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林業은 이들 山林에 대한 施業對策이 根本的으로 수립되지 않는限 山林에 대한 투자의 욕은 상실될 것이다.

특히 이들 山林은 大部分 가장 旺盛한 生長期에 있기 때문에 適正立木度維持를 通하여 生長促進과 더불어 林木의 形質 向上을 도모하여야 하는 山林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適切한 施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山林은 단지 綠化에 그치고 우리가 바라는 資源化實現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私有林의 80%가 II令級以下の 幼令林이므로 이들의 撫育을 위한 生産基盤造成의 政策配慮가 積極化되어야 할 段階에 이른 것이다.

私有林은 그 面積比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그 政策比重이 가장 크고 重要하면

서도 그 構造面에서나 經濟政策面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即 所有的 零細性和 所有目的과의 關係 經濟性的 落後不在山主의 增加등은 直接 投資를 誘發하지 못하는 큰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小規模山林은 地域山林의 次元에서 地域住民에 의한 經營體가 組織되고 經濟 社會政策的인 面에서 生産基盤造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山林基盤構築施設인 林道密度만 보더라도 日本의 約 50%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이는 其間의 政策이 소홀했다는 것보다는 林業의 發展段階로 봐서 이제 本格的으로 投資하여야 할 가장 重要的 山林施策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繼續되는 樹種更新과 撫育事業에 投入되어야 할 勞動力問題와 더불어 現在의 林道密度로 봐서 年次的인 計劃에 의하여 設置되어야 할 林道에 投入될 資本과 技術 및 人力確保등이 가장 當面課題가 될 것이다.

특히 山林組合의 山林開發事業이 本格化되어 各種山林事業을 할 수 있는 制度를 通하여 綠化에 이어 새로운 資源化事業이 推進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林道는 林業을 合理的으로 經營하고 山林을 보다 集約的으로 管理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具備되어야 하는 山林基盤構築物의 하나다. 따라서 林道는 各種 山林作業에 있어서 機械化와 林業勞動條件의 改善등으로 林業의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山林이 가지고 있는 多目的機能의 發揮를 위해서도 또한 農山村地域의 交通을 改善하는데 있어서나 地域産業의 均衡있는 發展과 地域住民의 福祉向上등에도 直接·間

接으로 寄與하는데 必要한 施設로서 그 영향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撫育 間伐이 中心 이되고있는 우리나라 山林構造에서는 林道 設置의 意義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1988년까지 林道の 總延長距離는 1,366 km로 이의 林道密度는 0.21m/ha가 되었다. 先進林業國인 獨逸의 40m/ha 美國의 10m/ha 日本의 4m/ha와 比較할때 이들 國家들이 山林基盤構築事業에 政府의 配慮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林道는 2030年度의 保續經營을 위하여 林道密度 10m/ha를 設置目標로 할 때 地域林業의 發展과 振興을 위하여도 地域山林에 대한 綜合的인 長期林道網計劃에 따라 그 設置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林道는 將次 地域間的 연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뿐아니라 均衡있는 山林의 發展을 위해서도 一時的인 林道計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現在 190萬名の 山主가운데 35%가 不在 山主로 되어있고 96%가 10ha未滿의 零細 山主로 構成되므로서 林業發展의 큰 취약점을 들어내고 있지만 이와같은 地域山林 全體計劃에 따라 林道가 設置運營되면 地域山林이 地域住民에 의해서 이루어질수 있는 協業 또는 山林契中心의 共同體運營으로의 轉換도 容易하여 私有林이 安고있는 여러가지 취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期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山林資源造成이 計劃대로 이루어지는 40年後에는 先進林業國 水準의 林道密度 10m/ha를 基準으로 할 때 總延長距離 56,000km의 林道가 設置되므로서 林業의 近代化를 위한 保續生産에 對備하는 基盤造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하여서는 1段階期間인 10

年間은 年間 1,000km씩 設置됨으로서 所要 豫算은 2,234,000萬원으로 政府의 絶對的인 支援이 必要할 것이다. 그후 2段階에서 4段階까지 30年間은 年間 1,500km씩 設置해 나가야 하는 計算이 된다.

林道는 一般道路와 달리 平素 그 活用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잦은 災害가 豫想된다. 또한 災害가 發生하였을 때도 쉽게 發見하거나 發見했다 하더라도 復舊를 지연시킬 素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設置된 林道는 施行主體側인 山林組合이 이를 林道台帳에 登載하고 平素 林道維持를 위하여 巡視班을 運營하여 災害發生을 事前豫防함은 勿論 早期復舊體制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一端 災害發生申告가 接受되면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의 節次가 필요하리라 믿는다. 即 災害發生-被害報告-復舊計劃 概要書提出-査定-事業決定의 節次를 통하여 쉽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事業은 山林開發事業團運營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事業團은 事業內容으로 봐서 專門技術人力確保가 重要視된다. 即 計劃 設計 施工 監理에 이르기까지 專門人力으로 組織이 되고 이에따라 事業이 實施되어져야 할 것이다. 事業實行은 大形 機械에 의한 土木工事が 主가 될것이므로 機械와 土木에 대한 技能人으로 作業班이 編成되어져야 할 것이다.

運營上의 編制는 山林組合中央會에 事業團 本部가 設置되어 事業을 總괄하여 指導 監督하고 各道支部에 1個의 事業團이 組織되어 道內事業計劃量이 年中事業으로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林道設置가 主된 業務가 될것이므로 몇個郡을 單位로 하여 必要한 林道作業班을 編成하여

區域內 事業을 巡回實施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다만 이와같은 基本施設은 단순한 土木工事라기보다 山林과 林業經營이라는 特殊目的에 의하여 설치되는 土木事業이기 때문에 一般土木에서 쉽게 關與할 性質이 아니다. 이것은 그간의 行政節次上이나 設置上 여러가지 施行錯誤에서 說明되거니와 어디까지나 技術行政面에서 設計 施工 및 監理에 이르는 節次가 林業的인 側面에서 行政이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政府가 새로운 林政의 當面政策으로 山林基盤構築에 대한 基本方針이 세워졌으면

技術確保에 대한 對策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林道와 같은 土木事業이 本格的인 設置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技術蓄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는 充分한 人力確保를 위한 契機가 되었다고 봐진다.

이제 各大學 林學科 出身者로 大學의 推薦을 받아 短期實務教育을 통하여 調查 設計 및 監理를 할 수있는 林道技術者를 養成 輩出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었다고 본다.

회원에게 알립니다

◎ **업무협조사항** : 회원명부 및 카드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히 공문으로 발송해드린 서식에 한분도 빠짐없이 기재하여 5.30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식내의 기재사항은 타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 **원고기고협조** : “산림경영”지는 여러분의 회지입니다. 각종 경영정보는 물론, 우리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수 있는 순수 민간지로의 언론(言路)가 되도록 키워나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소득원이 될만한 정보, 회원동정등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200자 원고지 1매당 3,000원)

◎ **회비납입안내** : 회비를 아직 납입치 않는 회원께서는 다음계좌번호에 납입하여 협회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827-01-0037-647

권 오 진

농 협 : 031-01-231375

한국독립가협회